

논단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소고

-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9일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유아교육제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05년 이후 유아교육재정 규모는 연평균 18% 이상 증가하였고, 만5세아를 둔 가구의 70%까지 무상교육 실시, 종일반 운영 유치원 확대(전체 유치원의 95%) 및 교육과정 내 실화 등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아학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도시지역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질 높고 저렴한 유치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급증하는 등 유아교육의 사교육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는 그동안 학계,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아교육 선진화 T/F를 구성·운영('09.7~10)하여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었던 유아교육 선진화 T/F에는 유치원 설립 및 경영분과와 유치원 교육력 제고 2개 분과에서 학계, 공사립유치원, 교육행정, 교육재정, 건축, 학부모, 공학, 정보, 분야의 전문가 21인이 참여하였다.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들은 대부분 2010년도에 구체화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개편, 교사 임용·양성제도 개선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2012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지원(support)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사용하되 중앙정부는 표준 모델 및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재정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에 기초하여 5개 영역 25개 과제가 발표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조성 사업이 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과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책분야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계획 25개 과제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 사업 세부 사업 (연구 및 T/F 운영)
유아학비 부담경감	1.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 육성	

	2.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3.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 운영 활성화	
	4.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5.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 개선	유아 외국어교육 실태와 대책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1.	유치원비 등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 도입	유치원 정보공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2.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및 신용 카드 납부제 도입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도입 방안
	3.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4.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	유치원 평가와 종합컨설팅 연계지원 방안
	5.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	유아교육 정책 및 지원성과 연차 보고서 발간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1.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 방안(T/F)
	2.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유치원 종일제 운영 모형 개발
	3.	다양한 심화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유치원 종일제 특별활동 구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4.	지역단위 공사립유치원 협력 체제 구축	
	5.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	
우수 교원 배치 활용	1.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유치원 교사 양성 및 임용 체제 개선 방안(T/F)
	2.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장학 지원	
	3.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계적 도입	유치원 교원의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및 활용
	4.	우수 교사 발굴 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5.	공립원장 평가 공모제 도입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3.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 연계 강화	
	4.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 분담	유아교육 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5.	‘유아교육 바로 알기’ 홍보 강화	
			유아교육법 개정 시안 개발
			유치원 표준 설계 지침 개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각 추진 분야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들은 이전에 여러 정책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던 과제들을 재검토하고 구체화한 것도 있으며(예: ‘유치원 운영위원회,’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유아기 핵심역량’), T/F에서 제안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예: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 운영 활성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예: 지역단위 공사립유치원 협력 체제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와의 연계(예: 교원평가, 원장 공모제)를 고려한 과제도 있으며, 유아교육만의 특별한 과제인 ‘유아교육 정보화 시스템 구축’도 있다. 유아교육 정보화 시스템은 초 중등학교 시스템인 NEIS, EDUFIN과 별도로 유치원 실정에 맞는 간결하고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유아교육 바로 알기 홍보’ 강화와 같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유치원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과제도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의 추진 분야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유치원 정보 공시, 재무회계규칙 도입,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유치원 평가 지속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초중등학교와 같은 학교제도를 구축하고 우수교원을 선발, 양성, 임용, 배치하여 유아기 핵심역량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공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화 방안에는 유아교육자들이 주장해온 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유치원계의 오랜 숙원인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교육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이 부분에서 정책입안자들과 유아교육계의 견해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교과부의 기본 입장은 그동안 유아교육계가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에 갇혀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질적으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뒤져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할분담과 같은 범부처 차원의 협의가 필요한 분야는 범부처 협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건의하는 대신 교과부 주도로 추진 가능한 과제에 집중을 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교과부는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을 통해 유아교육 인프라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 교원 정책 등 유아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행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동안 재정투명성 등이 문제가 되어 왔던 사립유치원을 재정지원과 책무성·투명성을 강력하게 연계함으로써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화 방안이 유아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보니 학계, 교육청, 공사립 유치원 모두 선진화 방안의 전체 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자 자신의 입장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이해를 하면서 점차 혼란이 가중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선진화 방안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유치원 평가가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이나 컨설팅 지원 등의 과제와 복합되면서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생긴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본교육과정과 특성화를 포함한 방과 후 종일제 프로그램의 성격 및 유아기 핵심역량을 둘러싸고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다보면 과제가 본래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유아교육계의 모든 구성원이 선진화 방안의 내용 및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유치원은 원아 수 감소, 대형 영어 학원의 등장,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사교육의 심화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이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당장 다급하게 해결해주는 것 같지는 않다. 유아교육의 완전 무상 의무교육, 유아학교로의 유보 통합과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놓고 보면 겨우 한 발자국을 뗀 것 같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나 인프라 구축 등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인정한 점, 그리고 이제는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단지 관심만이 아닌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였다는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이다. 실제 유아교육 예산은 '08년 1조 121억 원에서 '10년도에 1조 5,29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고 그 내용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은 분명히 아니지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 내용만이라도 실천된다면 유치원의 질적 수준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이고 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제별로 세부 실행 계획이 수립되고, 필요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법률의 예를 들어보면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직장부설유치원 근거 규정 마련 및 종일제 개념 재정의 등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공립유치원장 공모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마련,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 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뿐만 아니라 과제에 따라 부처 간의 협의(예;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 및 운영의 활성화), 재정 확보(예: 유아학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 후속 연구(유치원 정보공시 법제화 및 매뉴얼 제작을 위한 정책연구, 미래형 교육과정, 교원 양성 등), 전문 인력 지원단의 구성(예: 멘토링), 각종 추진 기구 구성 및 운영, 시도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동안 유아교육은 정부의 관심 없음을 탓해왔다. 이제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유아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여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유아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시점이다.

1. 학회활동보고

1) 학술대회 - 2010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10년 5월 1일 (토) 09:00 ~ 16:10
- 장 소 : 경원대학교 새롭관 멀티미디어실
- 주 제 : **다문화 사회에서 유아, 부모, 교사의 역량강화**

<주제강연 I>

법적·사회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가족

-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강연 II>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정책동향과 교육

-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주제강연 III>

가족지원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유아와 부모

- 김희진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 부모,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실제>

1 분과	2 분과	3 분과
교 사 역 량 강 화		
유아교사의 부모지원역량에 기초한 유아의 자긍심 길러주기 - 박선희 (화천사내초병설유치원 원감)	유아교사의 전환학습에 기초한 유아다문화교육 실천방안 탐색 - 정지현 (경성대학교 교수)	유아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 실제 - 이승은 (동신대학교 교수)
유 아 역 량 강 화		
새터민 유아의 초기 적응과정 이해 - 강재희 (우송대학교 교수)	통합교육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사례 - 유향선 (배화여자대학 교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역량강화 - 최명희 (마포구보육정보센터장)
부 모 역 량 강 화		
다문화 어머니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가정·기관 연계 프로그램 - 임영심 (경북대학교 교수)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 부모지원 프로그램 - 이은희 (안산삼성어린이집 원장)	베트남 다문화 가족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 김종욱 (청운대학교 교수)

<<< Young Scholar Session >>>

<1분과>

한국사립유치원의 변천과정 - 1980년부터 2008년 -

- 심은희 (백석문화대학 교수)

유치원 교사의 과학 교수 과정에 나타난 교수 행동 요소 및 과학적 대화 분석

- 권미경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다중지능의 개인적 지능 프로그램에 관한 단기 종단적 내러티브 연구-「영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 배지현 (성결대학교 강사)

<2분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 이정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유아교사의 과학교과교육학 지식 측정도구 개발

- 김현진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기경험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 김정주 (안양과학대학 강사)

2) <육아지원연구> 발간

- 제 5권 1호 발간 : 2010년 4월 발간 (총 8편 논문)

3) 2010년 하계 연구소모임 -<주제> 유아교육과정의 현대적 동향 - 미국, 영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① 제37차 연구소모임

- 일시 : 2010년 7월 12일 (월) 10:00 ~ 12:00
- 장소 : 경원대학교 대학원 세미나실 (103호)
- 주제 : I. 영국의 영유아기(Early Years) 핵심역량
II. 캐나다 유아교육과정 - 퀘벡주를 중심으로-
- 발표 : 영 국 - 이진화 (송의여자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조인경 (해천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유영의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캐나다 - 최윤정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안경숙 (호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참석인원 : 31명

② 제38차 연구소모임

- 일시 : 2010년 7월 19일 (월) 10:00 ~ 12:00
- 장소 : 경원대학교 대학원 세미나실 (103호)
- 주제 : III. 미국의 유아교육과정
- 발표 : 성원경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전홍주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안부금 (창신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참석인원 : 34명

4) 이사회의

① 제2차 이사회

- 일시 : 2010년 3월 13일 (토) 12:30
- 내용 : 2010년 부서별 사업계획 보고
2009년 결산보고

② 제3차 이사회

- 일시 : 2010년 8월 27일 (화) 13:00
- 내용 : 2010 춘계학술대회 보고
2010 하계 연구소모임 안내
2010 추계학술대회(안) 협의

5) 학술대회 - 2010년 추계학술대회 계획

- 일 시 : 2010년 11월 6일(토) 09:00 ~ 16:30
- 장 소 : 경원대학교 비전타워 영상문화관
- 주 제 : 『놀이와 학습: 미래를 위한 반성과 도전』

2. 회 원 동 정

<저서 발간 소식>

- 김혜경 (2010), 교구교재연구 및 지도법, 공동체

<임용소식>

- 박희숙 :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임용 (2010년 3월)

<개원소식>

- 강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 개원 (2010년 5월)